



기타 - 김영관

기자가 한국제지 사내 음악밴드 페이퍼스를 취재하기 위해 연습장을 찾아간 날은 장마 기간 속에서도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만큼 날씨가 좋았다. 음악엔 문외한이었기에 음악밴드 방문이 약간은 멋쩍었지만 간만에 갠 7월 중순의 밤공기가 기자의 마음에 여유를 줬다. 연습장에 들어서자, 대여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카운터가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몇 개의 방이 배치돼 있는 모습이 딱 노래방이었다. 각각의 방에 노래방 기계가 아닌 스피커, 앰프를 비롯한 출력장비와 드럼, 건반 등의 악기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 달랐다. 비교적 소지가 간편한 전자기타와 베이스 등만 준비해 오면 운반에 어려움이 따르는 드럼과 건반은 연습실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방마다 완벽한 방음시설을 구비했

다는 것도 일반 노래방과는 차이가 났다. 기자가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동안 6명의 페이퍼스 회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악보를 점검하고 악기를 조율했다.

진정한 순수 아마추어 밴드

페이퍼스의 회원은 회장인 김갑태 총무인사팀 차석을 비롯해 총 9명이다. 이는 회사 동호회 규칙을 맞추기 위해 협력(?)한 결과이고 실제 밴드 활동은 페이퍼스의 산파이자 실질적인 리더인 김영관 영업2팀 사원(전자기타)을 포함해 6명이 하고 있다. 정의평 영업2팀 주임이 전자기타를 맡고 있으며, 안은선 전산팀 주임이 건반, 윤소정 홍보팀 사원이 베이스, 김지영 해외영업팀 사원이 드럼, 조



드럼 - 김지영

동 호 회 탐 방

한국제지 사내 밴드 페이퍼스

음악선율을 속에 찌든 스트레스 술술~~



기타 - 정의평



현정 전산팀 사원이 보컬을 담당하고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페이퍼스 회원 중에 직접적으로 음악 동아리 경험을 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오로지 조현정씨만이 대학교에 다닐 때 통기타 동아리 활동을 했을 뿐이다. 진정한 순수 아마추어 밴드라는 얘기가. 그러면서도 다른 밴드 못지않은 음악에 대한 열정을 발산하는 것은 더욱 놀랄 만하다. 또한 조현정씨 외 김영관, 정의평, 안은선씨들도 곡 분위기에 맞춰 번갈아 노래를 불러 다양한 음악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기성 밴드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



베이스 - 윤소정

개인레슨 받아
가며 동호회 참여
바쁜 회사생활에 쫓기면
서 동호회 활동을 한다는 게 말처럼



건반 - 안은선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퍼스가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팀을 꾸려 10개월만인 지난 6월10일에 제1회 정기공연을 마친 데는 김영관씨의 작업(?)이 큰 역할을 했다. 같은 팀 소속인 정의평, 김영관씨는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선후배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2005년 8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숨겨놓던 선후배가 술자리를 통해 의기투합, 사고를 치게 된다. 결과는 밴드결성으로 나타났고 영입 1순위로 떠오른 사람이 현재 건반을 맡고 있는 안은선씨였다. 예상대로 음악을 좋아했던 안은선씨는 흔쾌히 동의했고 곧바로 3명이 모여 간단한 연습을 했다. 그런데 전자기타와 건반만으로는 밴드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드럼과 베이스 연주자를 구하는 게 급선무였다. 이에 김영관씨는 음악을 좋아하는 주위 사원부터 작업을 걸었다. 다행히 몇 번의 시도 끝에 작업에 성공, 현재 베이스와 드럼을 맡고 있는 윤소정씨와 김지영씨가 전격적으로 입단하게 됐다. 특히 윤



보컬 - 조현정

페이퍼스는 1년에 2회의 정기공연을 올리겠다는 목표인데, 계획대로라면 오는 12월에 두 번째 공연을 하게 된다.



소정씨와 김지영씨는 해당 악기 경험이 전혀 없어 개인레슨을 받아가며 밴드에 합류했다. 이는 다른 회원들이 지금까지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보컬을 맡고 있는 조현정씨가 2005년 9월에 마지막으로 합류,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후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조현정씨는 통기타 동아리 활동을 하며 일반 무대는 물론, 지하철역내 공연 경험도 있었다. 또한 동아리 경력을 바탕으로 제1회 공연 때 통기타 연주를 선보이기도 했다. 뒤늦게 대어(?)를 낚았다는 평가다.

음악실력 · 인간관계 부쩍 좋아져

현재 페이퍼스는 2주에 1회 꼴로 연습한다. 매주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레슨을 받고 있는 윤소정씨와 김지영씨가 연습한 것을 충분히 체득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또한 페이퍼스는 1년에 2회의 정기공연을 올리겠다는 목표인데, 계획대로라면 오는 12월에 두 번째 공연을 하게 된다. 공연을 준비하며 음악 실력이 부쩍 성장하고 인간관계도 크게 가까워진다는 것이 회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공연 2달 전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연

습을 하는데 음악도 베풀기기가 통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습 후 가까운 곳에 소풍을 가거나 여가시간을 같이 보내곤 하는데, 인간적으로 부쩍 가까워지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다.

음악은 즐길 때 아름다워진다

페이퍼스 회원들은 즐기기 위해 음악을 한다. 즐기는 것이 음악의 목적이고 이를 통해서 음악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형태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굳이 아까운 시간을 쪼개서 음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쌓였던 스트레스가 음악의 선율과 함께 녹아내릴 때 가장 만족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생각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연습도 공연도 즐거울 따름이다. 음악을 해석하는데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음악에 대한 애정의 차이는 결코 아니다. 각자 의견을 개진하고 대화로써 해결점을 찾으면 음악이라는 고리로 금세 다시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페이퍼스의 가장 큰 장점이다.

조갑준 차장 kjcho@print.or.kr